2026년 11월 기준 · WHAT YOUR DOG IS TELLING YOU

우리 강아지가 하는 말

꼬리·귀·짖음으로 읽는 강아지 마음 사전

수의대·ASPCA 공식 자료로 읽은 신호 45가지



꼬리를 흔든다고 다 반가운 건 아니에요

몸짓·소리·행동 45항목 · 「바로 병원」 신호표 · 기록표 등 부록 7가지

블록뮤즈 서재 엮음

블록뮤즈

차례

이 책을 읽는 법 3

1장 꼬리 흔들면 반가운 거 아니에요? — 강아지 말을 읽는 세 가지 순서 4

2장 몸짓 사전 — 귀·눈·입·꼬리·자세 18가지 11

3장 짖는 소리가 다 같은 말일까요? — 소리 사전 28

4장 핥고 털고 뒹구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 행동 사전 37

5장 「그만해 주세요」 신호 10가지 — 물림을 막는 법과 예절 48

6장 아파도 말을 못 해요 — 통증 신호와 「바로 병원」 신호 56

7장 우리 강아지 사전은 30일이면 만들어진다 65

부록 1 한눈에 보는 사전 — 45개 신호 한 줄씩 70

부록 2 「그만해 주세요」 사다리 — 냉장고에 붙이는 한 장 73

부록 3 「바로 병원」 카드와 전화할 때 말할 것 74

부록 4 우리 강아지 기준선 기록표 75

부록 5 우리 강아지 사전 한 장 76

부록 6 자주 묻는 질문 77

부록 7 도움 받을 곳 79

참고 자료 80

이 책을 읽는 법

꼬리를 흔들며 다가온 강아지에게 손을 내밀었다가, 낯게 으르렁대는 소리에 놀란 적이 있나요?

혼낼 때마다 고개를 숙이고 눈을 피하는데, 정말 잘못한 걸 아는 걸까요?

졸리지도 않은 것 같은데 자꾸 하품을 하는 건, 대체 왜일까요?

이 책은 그 답을 강아지의 몸에서 찾는 사전입니다. 꼬리·귀·눈·입·자세, 소리, 행동까지 신호마다 「무슨 뜻인지」와 「그럴 땐 어떻게 할지」를 한 쌍으로 적었습니다.

이 책의 한 문장

강아지는 짖기 전에, 으르렁대기 전에, 이미 여러 번 말했습니다. 우리가 못 알아들었을 뿐입니다.

미국 코넬대 수의대 리니 반려견 건강센터도 개가 으르렁댈 즈음이면 이미 하품·코 핥기·고개 돌리기 같은 더 작은 신호로 불편함을 알린 뒤라고 설명합니다(5장).

사전 읽는 법

2장부터 6장까지는 신호마다 한 항목이며, 모두 같은 순서로 읽습니다.

- 제목 — 보호자가 실제로 하는 말 그대로(「자꾸 하품을 해요」)
- 강아지 말로 옮기면 — 그 신호를 강아지 입장의 한 줄로 바꾼 것. 과학적 번역이 아니라 이해를 돕는 이 책의 풀이입니다
- 뜻 — 수의대·수의 단체·연구가 말하는 의미(숫자 옆 번호가 출처)
- 이럴 땐 이렇게 — 오늘 바로 할 수 있는 순서

내용은 미국동물학대방지협회(ASPCA), 코넬대·UC데이비스·일리노이대·텍사스A&M대·오하이오주립대 수의대, 미국동물병원협회(AAHA), 미국수의외과학회(ACVS), 미국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공식 자료와 학술

연구, 동물보호법 원문에서 확인했습니다. 번호는 책 끝 「참고 자료」의 번호이고, 근거 없이 이 책이 권하는 방법은 「이 책의 제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장마다 나오는 「장면」은 흔한 일을 섞어 만든 가상의 장면이며 실제 인물·가정과 관계가 없습니다. 책 속 사진도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든 그림입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이 책은 2026년 11월 기준입니다. 법과 지침은 바뀔 수 있으니, 법이 정한 일은 시·군·구청이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이 책은 수의사의 진료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몸짓 신호는 「병원에 갈지 말지」를 정하는 도구가 아니라 「병원에 무엇을 말할지」를 정리하는 도구입니다. 숨쉬기 힘들어하거나, 헛구역질만 하며 배가 불러 오거나, 쓰러지면 책을 덮고 바로 동물병원에 연락하세요. 「바로 병원」 신호는 6장에 표로 모았습니다.

이 책의 지도

장	무엇을 읽나	항목
1장	꼬리 흔들면 반가운 거 아니에요? — 읽는 순서 세 가지	원리
2장	몸짓 사전 — 귀·눈·입·꼬리·자세 18가지	01~18
3장	짖는 소리가 다 같은 말일까요? — 소리 사전	19~26
4장	핥고 털고 뒹구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 행동 사전	27~36
5장	「그만해 주세요」 신호 10가지 — 물림을 막는 법과 예절	37~40
6장	아파도 말을 못 해요 — 통증 신호와 「바로 병원」 신호	41~45
7장	우리 강아지 사전은 30일이면 만들어진다	관찰 기록

궁금한 항목부터 읽어도 됩니다. 마흔다섯 항목을 한 줄씩 줄인 「한눈에 보는 사전」은 부록 1에 있습니다.

1장

꼬리 흔들면 반가운 거 아니에요? — 강아지 말을 읽는 세 가지 순서

꼬리 하나, 귀 하나만 보고 강아지 마음을 짐작하면 자주 틀립니다. 이 장은 사전을 펴기 전에 알아야 할 「읽는 순서」를 다룹니다. 이 책을 다 읽으면 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래 세 가지입니다.

이 장을 읽고 나면

- ✓ 신호 하나가 아니라 상황·몸 전체·그다음 행동을 묶어 읽는다
- ✓ 「그만해 주세요」 신호를 으르렁대기 전에 알아보고 멈춘다
- ✓ 아픔 신호와 「바로 병원」 신호를 가려 제때 동물병원에 간다

「꼬리를 흔들길래 반가운 줄 알았는데, 왜 물려고 했을까?」

장면 예시

가상의 장면 — 아파트 놀이터 옆 벤치

처음 보는 개가 보호자와 함께 벤치 옆에 섭니다. 꼬리가 높이 올라가 빠르게 흔들립니다. 일곱 살 아이가 「강아지다!」 하며 손을 쭉 뻗습니다.

개는 움직임을 멈춥니다. 다리를 곧게 펴고, 아이 손을 똑바로 바라봅니다. 꼬리는 여전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보호자가 「얘 순해요」라고 말하는 순간, 낮은 소리가 개의 목에서 흘러나옵니다.

이 개는 처음부터 반갑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꼬리만 봤을 뿐입니다.

근거

흔드는 꼬리가 늘 반가움은 아니다

ASPCA의 물림 예방 안내는 흔들리는 꼬리나 몸을 낮춘 자세가 늘 친근함을 뜻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꼭 알아 두라고 적었습니다. 경계하거나 공격적인 개는 귀가 위·앞으로 서고, 등과 꼬리의 털이 서거나 부풀고, 꼬리를 곧게 세운 채 흔들기도 하며, 다리를 뻣뻣하게 편 채 상대를 노려보거나 다가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1].

반대로 불안하거나 무서운 개는 몸을 작게 보이려 합니다. 웅크리고, 고개를 낮추고, 입술을 자꾸 핥고, 꼬리를 다리 사이에 넣고, 귀를 뒤로 붙이고, 하품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1].

그래서 이 책은 신호를 읽을 때 세 가지 순서를 권합니다.

첫째, 방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봅니다

자고 일어난 뒤의 하품과 발톱깎이를 꺼낸 순간의 하품은 다른 말입니다. 신호를 보기 전에 바로 앞에 일어난 일을 먼저 떠올립니다. 낯선 사람이 왔는지, 큰 소리가 났는지, 몸을 만졌는지, 밥그릇 근처였는지.

둘째, 몸 전체를 한 번에 봅니다

꼬리만, 또는 얼굴만 보지 말고 귀·눈·입·몸통·꼬리 다섯 군데를 한 장면으로 봅니다. 아래 표는 ASPCA와 미국켄넬클럽(AKC) 자료가 설명하는 편안한 개·경계하는 개·무서운 개의 특징을 바탕으로 이 책이 정리한 것입니다[1][15].

볼 곳	편안할 때	경계·긴장할 때	무서울 때
귀	힘이 빠져 자연스러움	위·앞으로 바짝 섬	뒤로 납작하게 붙임
눈	부드럽고 느긋함	한곳을 똑바로 응시	피하거나 흰자가 보임
입	벌어져 있고 혀가 늘어짐	꽉 다뭄	입술을 자꾸 핥음
몸	느슨하고 흔들거림	다리를 펴고 뻣뻣함	웅크리고 작아짐
꼬리	자연스러운 높이	곧게 세운 채 흔들기도	다리 사이로 말아 넣음

한 칸만 보고 단정하지 말고, 여러 칸이 같은 쪽을 가리키는지 봅니다(이 책의 제안).

셋째, 그다음에 무엇을 하는지 봅니다

근거

신호는 사다리처럼 올라간다

코넬대 리니 반려견 건강센터는 개의 두려움·불안·스트레스가 물림으로 커지는 과정을 「공격성의 사다리」로 설명합니다. 맨 아래는 하품·눈 깜빡임·코를 자꾸 핥기, 그 위는 고개 돌리기와 눈 피하기, 몸을 돌리거나 자리를 뜨기입니다. 더 올라가면 뒷걸음질·귀 젖히기, 꼬리를 말고 웅크리기가 나오고, 마지막 칸에 몸이 굳고 노려보기, 으르렁대기, 허공 물기, 물기가 있습니다[2].

ASPCA도 개가 경고 없이 무는 일은 드물며, 다만 경고와 물기 사이가 아주 짧을 수 있고 보호자가 그 경고를 알아채지 못해 「갑자기 물었다」고 느끼는 일이 많다고 적었습니다[3].

아래 칸에서 알아채면 위 칸까지 갈 일이 없습니다. 사다리 전체는 5장에서 표로 다시 봅니다.

우리 강아지의 「평소 얼굴」부터 알아 두세요

같은 신호도 강아지마다 다르게 보입니다. 귀가 원래 늘어진 견종은 「귀를 뒤로 붙였는지」가 잘 안 보이고, 꼬리가 짧거나 말려 있는 견종은 꼬리 높이를 읽기 어렵습니다. 코넬대 리니 센터도 개가 아픔을 드러내는 방식이 견종·개체·나이·아픈 기간에 따라 다르다고 적었습니다[5].

그래서 우리 강아지의 기준을 먼저 만들어 둡니다. 편안할 때를 알아야 「평소와 다르다」가 보입니다.



햇살이 드는 거실 바닥에 몸을 늘어뜨리고 누운 강아지 — 귀·눈·입에 힘이 빠진 「평소 얼굴」을 먼저 알아 두면 달라진 순간이 보인다

해결

평소 얼굴 기록하기(이 책의 제안)

1. 편안한 순간에 사진 세 장: 푹 쉬고 있을 때 정면 얼굴, 옆모습 전체, 꼬리가 보이는 뒷모습을 찍어 둡니다.
2. 다섯 군데를 말로 적기: 귀(서 있나·누웠나), 눈(크게 뜨나·가늘게 뜨나), 입(벌어졌나·다물었나), 몸(느슨한가), 꼬리(평소 높이)를 한 줄씩 적습니다.
3.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 각 세 가지: 좋아하는 놀이·손길, 싫어하는 소리·손길.

꼬리 하나로 마음을 읽지 마세요. 「방금 무슨 일이 있었나 → 몸 전체는 어떤가 → 그다음에 무엇을 하나」 세 가지를 묶어 읽으면, 같은 꼬리도 다른 말로 들립니다.

바로 쓰는 것

우리 강아지 평소 얼굴 기록표

볼 곳	편안할 때 우리 강아지는	날짜
귀		
눈		
입		
몸		
꼬리		
좋아하는 손길		
싫어하는 소리·손길		

이 장의 출처

[1] ASPCA, 「Dog Bite Prevention」. https://www.aspca.org/pet-care/dog-care/dog-bite-prevention

[2] 코넬대 리니 센터, 「Dog Bite Prevention — April 2025」(Dr. Aly Cohen). https://riney.vet.cornell.edu/member-benefits-health-tips/dog-bite-prevention-april-2025

[3] ASPCA, 「Aggression」. https://www.aspca.org/pet-care/dog-care/common-dog-behavior-issues/aggression

[5] 코넬대 리니 센터, 「Recognizing pain in dogs」. https://www.vet.cornell.edu/departments-centers-and-institutes/riney-canine-health-center/canine-health-topics/recognizing-pain-dogs

[15] American Kennel Club(AKC), 「Why Do Dogs Roll on Their Backs?」, 2026. 10. 9. 갱신. https://www.akc.org/expert-advice/lifestyle/why-does-my-dog-roll-on-their-back/